



STARTUP RECIPE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weekly startup recipe

2026

— 10월 12일 - 16일 주간 투자 동향

welcome to weekly report

2026년 10월 12일부터 16일 주간에는 전체 투자 유치 기업 수가 51개이며, 이 가운데 투자액을 공개한 15개 기업이 1,540억 5,000만 원 투자를 유치했다. 컨슈머테크가 30%를 넘기며 분야별 투자를 이끈 한 주였다.

51

투자 유치 기업 수

15

투자액 공개 기업 수

1,540

억 5,000만 원

주간 공개 투자 유치 총액

content

01

주간 투자금 현황

공개 투자금 기준 기업별 유치 규모

02

단계별 · 분야별 투자 규모

투자 라운드와 산업 분야별 분포

03

주요 투자 유치 기업

15개 기업 상세 리포트

04

주간 체크 포인트

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진출자 선발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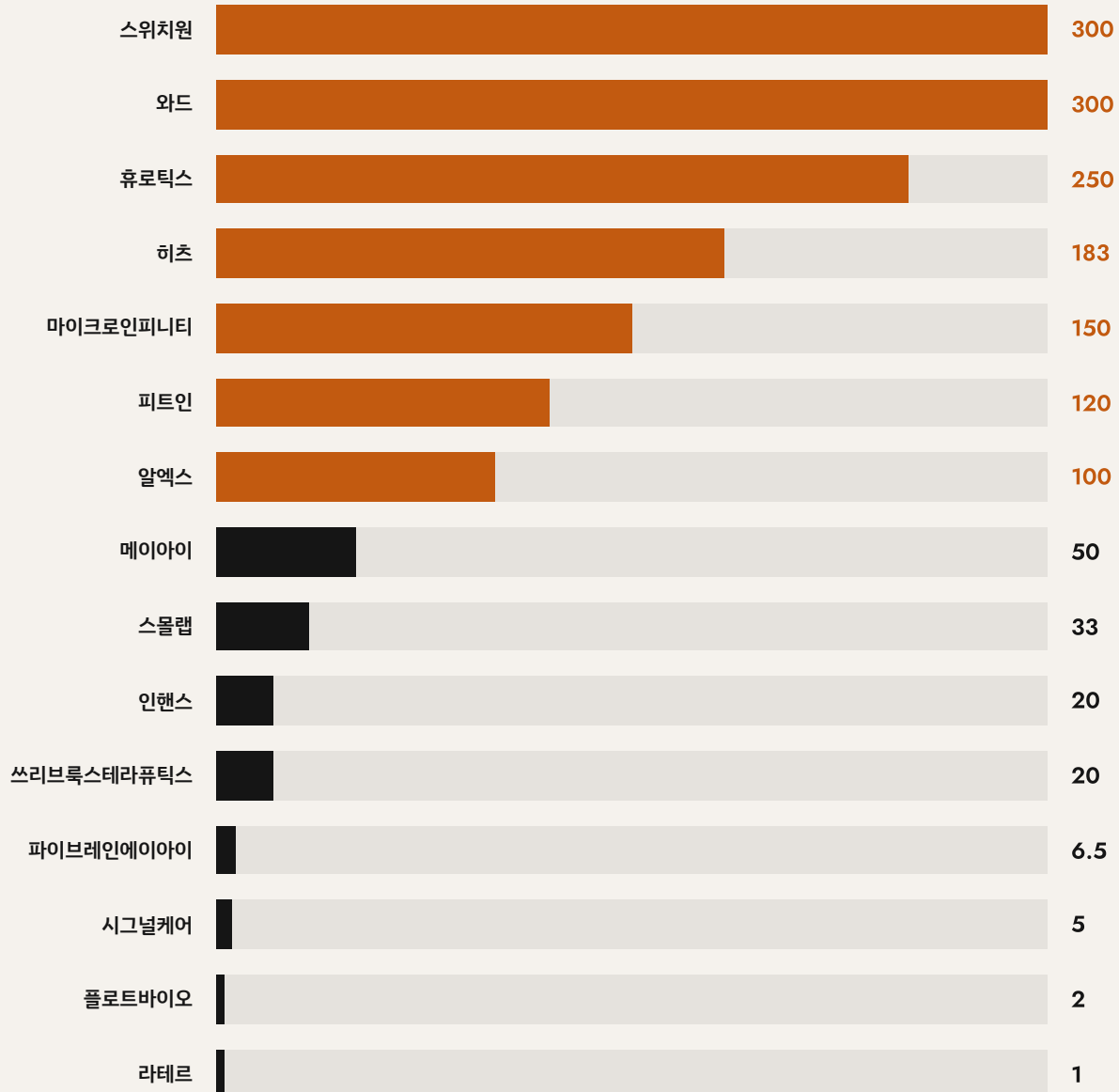
주간 투자 현황 테이블

전체 51개 기업 투자 내역

weekly funding

투자금 — 공개 기준, 단위: 억 원

주요 투자 유치 기업을 보면 글로벌 외환테크 기업 스위치원이 300억 원 시리즈A를, 맛집 예약 플랫폼 기업 와드가 300억 원 시리즈E 투자를 유치했고, 웨어러블 로봇 기업 휴로틱스가 250억 원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며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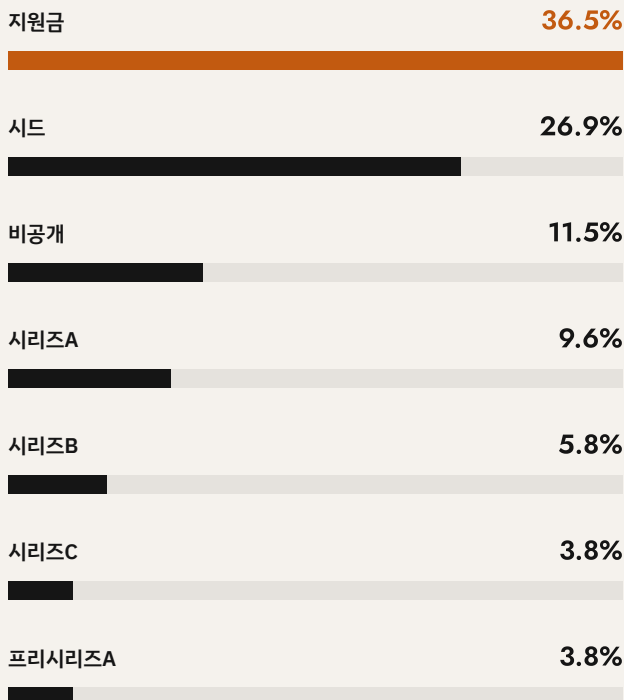


stage & sector

이번 주 단계별 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지원금이 36.5%를 기록한 가운데 시드 26.9%, 시리즈A 9.6%가 뒤를 이었다. 분야별 투자 규모의 경우에는 컨슈머테크가 31.4%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어서 바이오/헬스케어 17.6%, 제조 15.7%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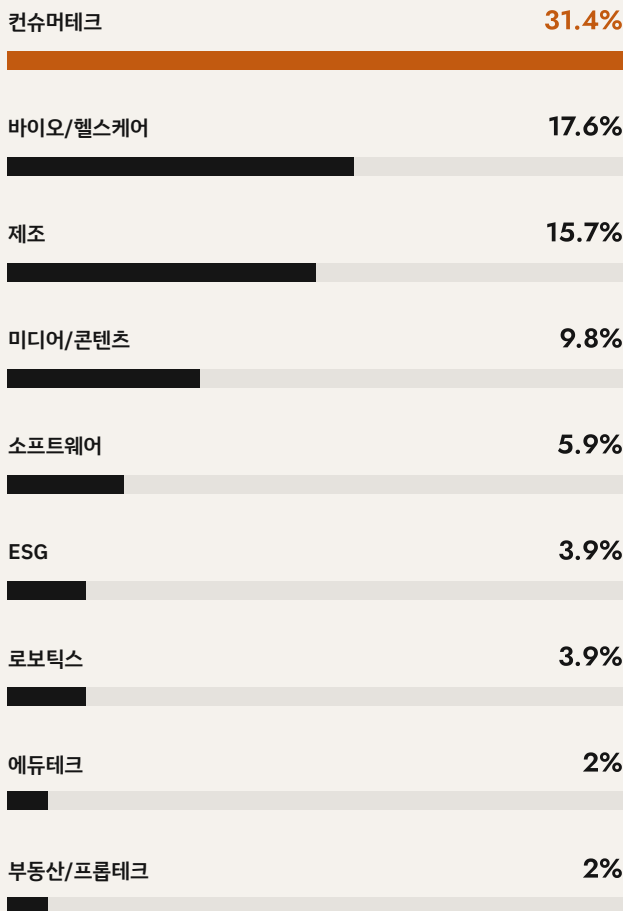
단계별 투자 규모

BY STAGE



분야별 투자 규모

BY SECTOR



our picks

COMPANY 01 — 05

인헨스

20억 원

시리즈C

엔터프라이즈 AI 운영체제(OS) 개발사 인헨스가 포스코DX로부터 2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하고 업무 협력을 추진한다. 이번 투자는 포스코기술투자자와 포스코DX가 공동 출자한 기업벤처캐피탈(CVC)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이뤄졌다. 인헨스는 온톨로지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 내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숙련자의 경험과 예외 상황 대응 방식, 업무 판단 기준 등 문서화하기 어려운 암묵지까지 AI 에이전트에 반영해 업무 실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

사는 포스코그룹 사무업무에 적용해 효과를 확인한 에이전트 OS를 바탕으로 재무 수익성 분석 등 실무 적용을 확대하고, 향후 생산·설비·물류 현장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인헨스는 포스코DX의 산업 분야 전문성과 자사 기술을 결합해 철강·물류 산업에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에도 나선다. 이번 협력을 통해 기업 업무 전반의 AI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에이전틱 AI 적용 사례를 확대할 방침이다.

피트인

120억 원

시리즈A

상용 전기차 에너지 플랫폼 기업 피트인이 12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사실상 끝냈다. 13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이번 라운드에는 코리아에셋, 현대차 제로원, 신용보증기금,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등 여러 재무적투자자

(FI)가 참여했다. 투자금은 대부분 이미 들어왔고, 남은 10억 원도 이달 안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펀딩 절차는 곧 끝날 것으로 보인다. 피트인은 이번 투자금으로 플랫폼 사업을 넓힐 계획이다.

마이크로인피니티

150억 원

시리즈C

방산 항법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노애파트너스로부터 150억 원을 새로 투자받았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발행했고, 노애파트너스가 3호 블라인드펀드인 ‘노애픽장지원 사모투자 합자회사’로 이를 인수했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핵

심 부품 양산을 늘리고 있으며, 투자금은 생산설비와 연구개발에 들어간다. 자금 외에도 노애파트너스의 방산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을 키우고, 기업공개(IPO) 준비도 지원받을 계획이다.

알엑스

100억 원

프리스리즈A 브릿지

소형모듈원자로(SMR) 엔지니어링 기업 알엑스(대표 이강현)가 100억 원 규모의 프리A 브리지 투자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KDB산업은행과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가 새로 투자자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 프리A 라운드에 이은 후속 투자이며, 기존 투자자 컴커니케이션파트너스도 추가로 투자했다. 이로써 알엑스의 누적 투자금은 239억 원으로 늘었다. 알엑스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열을 공급하는 SMR을 개발하는 회사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꾸려 경수형 열공급 SMR ‘RX-50’을 개발하고 있다. RX-50은 화석연료 열원을 대

신해 탄소 배출 없이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알엑스는 이번 투자로 중소벤처기업부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2단계 진입 요건인 30억 원 이상 후속 투자 조건을 채웠다. DCP 1단계에서 RX-50의 개념설계를 끝냈으며, 2단계 평가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간다. 알엑스는 한국원자력연구원 SMR 설계부서 출신 연구원들이 세운 기술 스타트업으로, 2024년 블루포인트파트너스에서 시드투자를 받았다. 이강현 대표는 RX-50의 기술 완성도를 높여 탈탄소 열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브레인에이아이

6억 5,000만 원

기타

물류로봇 전문기업 파이브레인에이아이(각자대표 박정원·송준호)가 코스닥 상장사 오아로부터 6억 5,032만 원을 투자받고 스마트 물류 자동화 협업에 나선다. 오아는 지난 7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8월 파이브레인과 신주인수계약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아는 파이브레인이 제3자배정으로 발행하는 보통주 3만 6,667주를 인수해 지분 24.07%를 확보한다. 인수 가격은 도원회계법인인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한 주당 1만 7,736원이며, 대금은 오는 23일 납입한다.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를 둔 파이브레인은 지난해 8월 설립된 산업용 물류 AI 로봇 개발·제조 기업이다. 비전 AI로 상품을 알아보고 포장과 테이핑, 운송장

출력까지 처리하는 ‘Py PACKR’와 LiDAR·덱스카메라를 활용해 스스로 이동하며 상품을 집어 옮기는 ‘Py PICKR’를 실증하고 있다. 컨테이너에 실린 박스를 내리는 하역 로봇 ‘Py LOADR’도 개발 중이다. 협업에서 파이브레인은 로봇 연구개발과 제조를, 오아는 물류 현장의 운영 경험과 실증 환경 제공을 맡는다. 현재 오아 포항 물류센터에서 포장 자동화 실증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택배 출고 현장에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로봇 적용 범위를 차레로 넓혀갈 계획이다. 오아는 다음 달 26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을 ‘오아투엑스(OATOX)’로 바꾸고 로봇·자동화 사업목적을 정관에 추가할 예정이다.

our picks

COMPANY 06 — 10

스몰랩

33억 원

시리즈B

마이크로니들 기반 뷰티·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스몰랩이 APS이노베이션으로부터 33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받았다. APS이노베이션은 이번 투자로 스몰랩 지분 7.2%를 확보해 4대주주가 됐다고 14일 밝혔다. 마이크로니들은 아주 작은 바늘 구조로 유효성분을 피부 속에 전달하는 기술이다. 스몰랩은 마이크로니들을 넓은 면적으로 연속 생산하는 LSCR 특허 기술을 가진 ODM 기업이다. 기존 평판 몰드 방식은 생산성에 한계가 있었는데, 스몰랩은 롤 투 롤 방식의 연속 대량생산 체계를 갖춰 원가 경쟁력과 품질 안정성을 높였다. 제조시설은 미국 FDA의 일반

의약품 GMP 실사도 거쳤다. 스몰랩은 고기능성 화장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약물을 담은 치료용 마이크로니들 패치 의약품도 개발하고 있으며, 글로벌 OTC 전문 제조사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투자로 스몰랩의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APS이노베이션이 앞서 인수한 화장품 설비 기업 아래의 장비 엔지니어링·OEM 역량과 합쳐진다. 두 회사는 APS이노베이션이 미국과 캐나다, 중국 등에 둔 해외 거점을 활용해 북미 시장에서 먼저 성과를 낼 계획이다.

스위치원

300억 원

시리즈A

글로벌 외환테크 기업 스위치원이 약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부산연합기술지주, 포스코기술투자, 인포뱅크, 대교인베스트먼트 등 기존 주주와 스위치원의 파트너 제휴사들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스위치원은 2022년 7월 환율 우대 100%를 내세운 환전·외화 보관 앱으로 출발했다. 이후 금·은·동 등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자산과 오프라인 금 판매, AI 알고리즘 기반 트레이딩 에이전트로 사업을 넓혔다. 올해 10월 기준 누적 거래액은 8조 원이며, 상반기 매출은 966억 원이다. 회사는 이번엔 확보한

자금을 금 거래 인프라 구축과 일본 디지털자산 시장 진출, AI 트레이딩 기술 고도화에 쓸 계획이다. 금 도매 거래 시스템과 금고 운영 체계를 갖춰 금코인 사업을 추진하고, 일본에서는 현지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엔화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준비한다. 서정아 대표는 환테크로 검증한 거래 기술을 기반으로 실물자산 기반 디지털 자산과 일본 시장 진출을 확대해 한국과 일본을 잇는 디지털자산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휴로틱스

250억 원

시리즈A

웨어러블 로봇 기업 휴로틱스가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주도한 25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해 누적 투자액이 335억 원을 넘었다. 이번 라운드에는 스톤브릿지벤처스와 중소기업은행 등 기존 투자사 대부분이 다시 참여했고, 미래에셋벤처투자자와 함께 대웅·네이버·롯데 등 헬스케어·유통·IT 분야 전략적 투자자도 새로 이름을 올렸다. 휴로틱스는 하버드대 위스연구소에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연구를 이끈 이기욱 중앙대 교수가 2022년 설립한 소프트 엑소슈트 전문 기업이다. 대표 제품인 의료용 보행 재활 엑소슈트 ‘에이치메디’는 옷처럼 입는 구조로,

센서가 걸음걸이를 실시간 분석해 부족한 힘만 보태 준다. 지난해 9월 상용화된 뒤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 대형 병원에 도입됐고, 올해 6월에는 미국 일리노이대 시카고에 수출됐다. 휴로틱스는 이번 투자금을 에이치메디의 해외 인허가와 판로 확대, 일상용 보행 보조 로봇 ‘에이치케어’의 개발과 양산에 쓸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근감소와 낙상 위험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착용형 피지컬 AI 데이터 플랫폼으로 사업을 넓힐 방침이다.

히츠

183억 원

시리즈B

바이오 AI 기업 히츠(HITS)가 183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마무리해 누적 투자액이 286억 원으로 늘었다. 이번 라운드는 프리미어파트너스가 이끌었다.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삼성증권, IBK벤처투자 등이 새로 참여했고, 한국투자파트너스를 비롯한 기존 투자사들도 다시 투자했다. 많은 AI 신약개발 기업이 자체 신약 후보물질을 키우는 것과 달리 히츠는 제약사와 연구기관에 AI 연구 플랫폼을 공급하는 사업에 집중해 왔다. 주력 제품인 ‘하이퍼랩’은 국내 주요 제약사와 국립암센터, 미국 암 연구기관 등이 돈을 내고 쓰고 있다. 히츠는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과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 사업에서 바이오 AI 모델 ‘K-폴드’의 상용화 기업으로도 뽑혔다. 히츠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2029년까지 3단계 성장 계획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사업 구조를 에이전틱 AI 중심으로 바꾸고, 북미 사업개발 인력을 늘려 미국과 유럽 고객을 넓힐 계획이다. 공급 방식도 구독형에서 사내 설치형과 API, 기업용 라이선스로 다양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생명과학 연구 전반을 지원하는 ‘AI 과학자 플랫폼’으로 키울 방침이다.

메이아이

50억 원

시리즈B

영상처리 AI 스타트업 메이아이가 5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를 마쳤다고 벤처투자업계가 14일 전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라플라스파트너스와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가 참여했다. 메이아이는 자체 개발한 오프라인 매장 분석 솔루션

‘매쉬(mAsh)’를 상용화하며 쌓은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성장 자금을 확보했다. 회사는 투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쓰는 한편,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조직 확충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our picks

COMPANY 11 — 15

시그널케어

5억 원

시리즈A 브릿지

사료 소재 기업 시그널케어가 액셀러레이터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았다고 벤처캐피탈 업계가 14일 전했다. 이번 자금은 시그널케어의 시리즈A 브릿지 라운드에서 들어왔다. 시그널케어가 MYSC의 투자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후속 투자로는 두 번째다. 시그널케어가 지금까지

MYSC의 3개 펀드에서 받은 투자금은 모두 17억 원이다. 초기 기업에 투자를 나눠 하는 경우가 많은 액셀러레이터가 한 기업에 이처럼 거둬 투자하는 것은 드물다.

와드

300억 원

시리즈E

맛집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을 운영하는 와드가 이니어스프라이빗에쿼티와 현대투자파트너스, NH투자증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투자받았다. 이번 자금은 와드가 모두 7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시리즈E 라운드의 일부로, 컨소시엄은 1차와 2차에 걸쳐 투자를 마쳤다. 와드는 남은 금액도 차례로 조

달해 일본 사업을 넓히고 음식점 관리 솔루션과 AI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쓸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와드가 국내 음식점 관리 솔루션 시장에서 확보한 고객 기반과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20억 원

프리시리즈A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기업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가 BNH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벤처캐피탈 업계가 15일 전했다. 이번 투자는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가 진행 중인 프리 시리즈A 라운드에서 이뤄졌으며, 자금은 BNH인베스트먼트의 1,000억 원 규모 펀드에서 나왔다. 회사는 이번 라운드에서 모두

55억 원을 모을 계획이고, 자금 조달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는 이온채널 신약을 개발해 본 대표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타깃을 경쟁 물질보다 높은 선택성으로 공략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투자를 끌어냈다.

라테르

1억 원

기타

아웃도어용 고기능성 특수 직물 기업 라테르가 호남벤처로부터 1억 원 규모의 투자 확약을 받았다.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라테르는 1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6 창업도약패키지 IR 데모데이 및 투자협약식’에서 호남벤처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투자는 인천TP의 단계별 연계 프로그램을 거쳐 성사됐다. 두 회사는 인천TP 특화프로그램 ‘투자

아트랙트’의 1대1 미팅에서 처음 공식 투자 상담을 진행했고, 9월 ‘도약 브릿지’ BizLink 워크숍에서 투자 조건과 협력 방향을 구체화했다. 라테르는 자체 특허 공법으로 아웃도어용 특수 직물을 생산하며, 원단 속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갖췄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제품으로 유럽 국제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현재 90여 개 글로벌 브랜드에 원단을 공급하고 있다.

플로트바이오

2억 원

시드

방광암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바이오 진단 스타트업 플로트바이오가 엠와이소셜컴퍼니(MYSC)로부터 약 2억 원을 투자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플로트바이오는 MYSC의 자체 투자 배치 프로그램 ‘2026 EMA Original’에 선발된 기업이며, 투자는 카이스트-미스크 더블임팩트 펀드를 통해 이뤄진다. 회사는 효소 바이오마커의 미세한 신호를 증폭하는 플랫폼 기술로 질환 진단 키트를 만들고 있다. 첫 제품 ‘BLOOM’은 소변으로 방광암을 가려내는 현장형 체외진단 키트로, 소변 속 혈액 등 불순물이 일으키는 신호 간섭을 줄이고 검출 신호를 키운 것이 특징이다. 고려

대 안암병원에서 임상 소변 검체 105개로 진행한 이중맹검 연구자 임상시험에서 진단 성능을 확인했고, 그 결과는 국제 학술지 《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실렸다. 현재는 대량·균일 생산 공정과 품질관리 체계를 갖추고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BLOOM의 적용 범위를 치주질환 등으로 넓히고, 상전환 기반 고감도 진단 기술 ‘Cut & Dip’을 활용해 채장암처럼 다중 바이오마커 분석이 필요한 질환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방침이다.

weekly check point

도전자 9만 3천여 명, 경쟁률 9.3대 1 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1만 명 선발

중소벤처기업부가 9만 3천여 명의 도전자가 몰린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1라운드 진출자 1만 명(일반·기술 8,000명, 로컬 2,000명)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2차 선발 경쟁률은 9.3대 1을 기록했다.

01

진출자 분포

진출자 중 청년층이 65.3%, 비수도권 지역이 74.0%를 차지했다. 창업 분야는 일반·기술 트랙에서 IT(28%)가 가장 많았고, 로컬 트랙에서는 생활 분야(49%)의 비중이 높았다.

02

재도전자 40.4%

1차에서 탈락한 뒤 아이디어와 사업 모델을 보완해 다시 참여한 재도전자가 전체 진출자의 40.4%를 차지했다. 반려식물 구독 서비스, 수능 만점자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노루궁뎅이버섯 커피 등이 선 발됐다.

03

지원 일정

선정된 1만 명은 10월 20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 멘토링, AI 솔루션 등을 지원받는다. 탈락한 8만 3,000여 명에게도 10월 26일부터 오프라인 재도전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 하며, 모집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한다.

funding table

PART 1 / 4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인헨스	엔터프라이즈 AI OS	20억 원	시리즈C	포스코DX
세진사	출장세차 앱	비공개	시드	서울대학교기술지주
택로봇	반도체 기반 고밀도 촉각센서	비공개	지원금	팁스
고산테크	산업용 잉크젯 시스템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스쿼드엑스	AI 기반 콘텐츠 마케팅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딥테크팁스
서로	스마트 사출 AI 품질관리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팁스
스코랩스	AI·데이터 기반 학습관리 시스템	비공개	지원금	팁스
에이에이씨바이오	퍼스널 웰스케어 솔루션	비공개	시드	비공개
티알	메디컬 테크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씨드앤	AI 건물 에너지 관리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리바이오	디지털 수질 진단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팁스
인피니티랩스	나노 소재	비공개	시드	더인벤션랩
더메디컬브릿지	베트남 성형·의료 중개 플랫폼	비공개	시드	더인벤션랩

funding table

PART 2 / 4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이보커넥트	의료관광 플랫폼	비공개	시드	더인벤션랩
스시사카바	일식 F&B 브랜드	비공개	시드	더인벤션랩
티티에프	지역특산주 제조	비공개	시드	더인벤션랩
루티너리	루틴·습관 관리	비공개	시드	더인벤션랩
엔닷라이트	3D 합성데이터 생성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킵코퍼레이션	AI 의료관광	비공개	지원금	팁스
골든브레인케어	AI 언어·인지 재활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팁스
낭만상회	외식업 운영 자동화 솔루션	비공개	지원금	딥테크팁스
에스에프솔루션	반도체 실리콘 성장 장비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피트인	상용 전기차 에너지 플랫폼	120억 원	시리즈A	코리아에셋, 현대차 제로원, 신용보증기금, 노틸러스인베스트먼트
마이크로인피니티	방산 항법	150억 원	시리즈C	노앤파트너스
스위치원	환전·외화 보관 테크	300억 원	시리즈A	부산연합기술지주, 포스코기술투자, 인포뱅크, 대교인베스트먼트
알엑스	소형모듈원자로(SMR) 엔지니어링	100억 원	프리시리즈A	KDB산업은행,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키움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funding table

PART 3 / 4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아크	망막 분석 의료 AI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파이브레인에이아이	물류로봇	6억 5,000만 원	기타(비공개)	오아
어거스트랩	AI 스마트 약기 플랫폼	비공개	시드	와이앤아처
남도마켓	도매시장 운영체제	비공개	시리즈A	타임웍스인베스트먼트
다운아이앤씨	AI 군집드론	비공개	기타(비공개)	모트렉스 그룹
스몰랩	마이크로니들 기반 뷰티·헬스케어 플랫폼	33억 원	시리즈B	APS이노베이션
퓨어	차세대 전달체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딥테크팁스
유닛미	실천형 참여 프로그램 운영 플랫폼	비공개	시드	상상이비즈
그린다	지속가능항공유 원료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베르티스	프로테오믹스 기술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라테르	아웃도어용 고기능성 특수 직물	1억 원	기타(비공개)	호남벤처스
히츠	제약 AI 연구 플랫폼	183억 원	시리즈B	프리미어파트너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삼성증권, BSK인베스트먼트, TBT파트너스, IBK벤처투자, 한국투자파트너스, 캡스톤파트너스, 라플라스파트너스
휴로틱스	웨어러블 로봇	250억 원	시리즈A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스톤브릿지벤처스, 중소기업은행, 미래에셋벤처투자, 대웅, 네이버, 롯데

funding table

PART 4 / 4

기업명	분야	투자금	투자단계	투자사
믹스룸	뮤직테크	비공개	시드	엠와이소셜컴퍼니
스모킹타이거	한국식 베이커리 카페	비공개	시드	더벤처스
메이아이	영상 처리 AI	50억 원	시리즈B	라플라스파트너스, 파이오니어인베스트먼트
시그널케어	사료 소재	5억 원	시리즈A	엠와이소셜컴퍼니
와드	맛집 예약 플랫폼	300억 원	시리즈E	이니어스프라이빗에쿼티, 현대투자파트너스, NH 투자증권
쓰리브룩스테라퓨틱스	퇴행성 뇌질환 신약 개발	20억 원	프리시리즈A	BNH인베스트먼트
바젠	고압수소 안전밸브	비공개	시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케노피	양우산 브랜드	비공개	기타(비공개)	아이콘빌더
주빅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스케일업팁스
핑바	AI 디자인 플랫폼	비공개	지원금	팁스
레드슬리퍼스	팬덤 데이터 기반 매출 연결 플랫폼	비공개	기타(비공개)	크립톤
플로트바이오	바이오 진단	2억 원	시드	엠와이소셜컴퍼니

see you
next week.

S STARTUP RECIPE

weekly
startup
recipe

2026

CONTACT US

기사 제보 news@startuprecipe.co.kr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7-5 마곡나루역 프라이빗타워
1, 604호

전화 070-4048-4013

WWW.STARTUPRECIPE.CO.KR